

# 잔인하거나 화끈하거나... '마라맛'에 빠졌다

펜트하우스·모범택시 등 19세이상 해외 순위도 적나라한 드라마 장악 넷플릭스 '브리지튼' 등 베드신 화제 OTT 제작 늘면서 과감한 시도 늘어

'마라맛'. 최근 자극적인 콘텐츠에 자주 붙는 수식어다. 강렬하게 매운데도 계속 찾게 되는 것이 향신료 마라의 맛과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지나치게 잔인하고 선정적이지만, 중독성 강한 재미로 눈길을 땔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 '마라맛' 콘텐츠가 '19금'으로 더욱 가속화하는 분위기이다. SBS '펜트하우스' 시리즈를 비롯해 '모범택시', tvN '마우스', JTBC '알고 있지만' 등 올해에만 무려 7편의 드라마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됐다. '펜트하우스'와 '모범택시'는 각각 29%(이하 닐슨코리아)와 16%를 넘기면서 시청률 성공도 맞았다.

부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채널A·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술을 소재로 한 IHQ '언니가 쓴다' 등 일부 예능프로그램도 '19금'을 내거는 등 관련 콘텐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만?... 해외도 '마라맛' 중독  
방송가의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선정성과 잔혹성 등 논란 속에서도 일명 '19금 콘텐츠'가 끊이지 않고 시청자를 찾고 있다. 올해에만 '19금 드라마'가 7편에 달한 가운데 SBS '모범택시'(왼쪽 사진)와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이를 대표한다.

1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랭킹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럴에 따르면 적나라한 베드신 등으로 화제를 모은 미국 넷플릭스의 '브리지튼'과 '섹스 라이프'는 올해 가장 많이 본 콘텐츠 2위와 4위에 각각 랭크됐다. 역시 '19세 이상 시청가'인 스페인 드라마 '검은 욕망'과 태국 드라마 '그녀의 이름은 난노' 등도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시즌제를 확정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시선이 나온다. 대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성인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최근 발표한 '2021 영상물 등급 분류 연

감'을 보면 지난해 대부분 연령 등급의 영화 편수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전년 대비 602편 늘어난 1996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OTT 플랫폼이 드라마·예능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과감한 시도의 발판이 됐다. 웨이브는 '모범택시', KT시즌은 8월 SKY 채널이 19세 이상 시청가로 선보인 '과기맨손:디 오리지널' 등 오리지널 시리즈를 내놨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채널 확보와 수익 보전이 가능해졌고, 시청 제한 등급으로 인해 시청률 성공이 어렵다는 편견도 깨졌다"고 설명했다.

●도전은 계속, 주의는 필요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배우 이정재·박해수 등이 주연해 잔인한 장면을 담아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7일 공개된다. 이어 '19금' 데이트 예능프로그램인 넷플릭스 '투 핫' 한국판 버전, 수위 높은 멜로 웹툰 '하지점'을 원작 삼은 드라마 등도 제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TV 매체의 특성상 방송 콘텐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현재까지 '펜트하우스' 1·2·3 관련 826건, '모범택시'는 159건의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노출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베니스 영화제' 개막...봉준호 감독 심사위원장에



봉준호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2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린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배우 전종서의 할리우드 진출작 '모나리자 앤드 더 블러드문'이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경쟁부문에는 이를 포함해 모두 24편이 초청됐지만 한국영화는 상영작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개막작은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연출한 '페렐렐 마더스'이다.

### 박하선, 수산업자 루머 관련 법적대응 예고



박하선

배우 박하선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로비 의혹을 받은 김모 씨와 관련한 루머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일 "김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으로 만난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생성·유포·확산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하선은 지난해 말 소속사와 재계약을 고민하던 중 신생매니지먼트사 주요 관계자라며 김씨를 소개받았다.

### KBS '로드 투 개콘' 11월 초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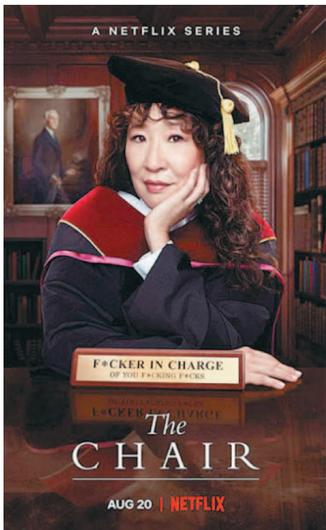


개그콘서트

지난해 '개그콘서트' 이후 폐지됐던 공개 코미디프로그램이 부활한다. KBS는 1일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 '로드 투 개콘'(가제)을 11월 초 방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TV '개그콘서트'가 종영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로드 투 개콘'은 코미디언들이 16개 팀을 이뤄 개그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투표로 5개의 라운드를 거쳐 최종 우승팀이 선발된다. 서바이벌 무대 외에도 팀별 준비 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샌드라 오, 한국계 대학교수 연기 극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체어'의 샌드라 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엄마아빠, 사랑해요!" 2019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국드라마 '킬링 이브'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샌드라 오(한국이름 오미주). 그는 또 박도박 한국어로 부모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에 앞서 미국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크리스티나 양이라는 한국계 캐릭터를 연기했다. '킬링 이브'에서는 영국 한인타운의 한식당에서 만두를 빚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한국계 대학교수가 되어 또 다른 무대에 섰다. 지난달 20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 드라마 '더 체어'(The Chair)이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영문학과 학과장 '지윤 김'을 연기한 샌드라 오의 극중 쇠락해가는 학과를 살리기

위해 백인 남성 위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쉽게 좌절하지 않는 당차면서도 경쾌한 이미지의 캐릭터 매력을 드러낸다. 미국 LA타임스는 "작품의 단점을 연기로 채우는, 모든 연기의 영역을 아우르는 배우"라고 극찬했다.

성장의 토양이 된 한국적 정서를 고스란히 녹여낸, 국내 시청자에게 익숙한 장면도 연출한다. 한국식 돌잔치와 돌잡이 장면, 영어와 한국어를 섞는 한인 이민 가족의 대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풍경 등이다. 또 극중 아버지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딸과 이야기를 나눈다. 샌드라 오의 일부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체어' 속 탈권위주의적 교수이면서도 여성과 유색인종으로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샌드라 오의 한국계라는

'더 체어'서 백인 남성 우월주의와 맞서 LA타임스 "작품 단점, 연기로 채웠다"

정체성을 떠올리게 한다. '더 체어'뿐 아니라 전작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해 여름 '킬링 이브'를 선보인 OTT 왓치플레이와 인터뷰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삶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많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내 정체성을 과연 서양의 한국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영화계에도 여성 영화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미국의 여성과 유색인종도 마찬가지다"면서 "그런 이슈는 시스템에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좋은 정책이나 선한 의지는 바꿀 수 없다.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진정으로 바꿔야만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걸 하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코로나 19 지속적인 불황에 장사가 안되시면

전통의 맛 가마솥 진국 **곤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가맹점 모집 1588-3892

잘되는 국밥집으로 간편만 바뀔 성공하세요

테이블 8개로 120만원 매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500만원 지원!!

250만원으로 쉽게 OPEN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밥 브랜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가맹 / 취급 500호점 OPEN 지원 혜택  
홍보를, SNS, 블로그, 각종 홍보 지원

9월 오픈예정점  
안양 호계점  
가평읍내점, 김천 어모점  
시흥배곧점, 영천 화룡점